

백열. 빛남. 뉴욕의 밤. 본드 넘버9, 색색의 컬러들로 찬란히 빛나는 맨하탄의 저녁 하늘을 기념

뉴욕, 2017년 9월 20일 /PRNewswire/ -- 인간은 빛에 이끌리는 생명체다. 그리고 인간은 매혹적인 향기에도 이끌린다. **매일 저녁이 찾아오면**, 늘어나는 뉴욕 맨하탄의 고층건물들의 꼭대기에서 환하게 켜지는 화려한 색색의 불빛들을 기념하며 탄생한 본드 넘버 9 (Bond No. 9)의 최신 오 드 퍼퓸 **뉴욕 나이트(New York Nights)**에서는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빛과 향기 두가지 모두를 발견할 수 있다. 이 불빛들 중 일부는 **아른아른 빛나는 백열빛**이고 또다른 불빛들은 현재 유비쿼터스하게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스크린에서 **빛을 내는 발광 LED**들이다. 이는 매일 해질녘이면 축하라도 하듯 빔들을 켜는 **엠파이어 스테이트(Empire State)**와 **크라이슬러 빌딩(Chrysler Buildings)**들과 함께 시작됐다. 결국, 아르데코 첨탑들(**Art Deco spires**)을 조명으로 얼마나 더 잘 빛나게 할 수 있는가?

인터랙티브 멀티채널 뉴스보도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:

왜 이 춤추는 색색의 무지개는 빛을 내는 것인가? 대답은 간단하다: 우리 뉴욕커들은 낮동안 열심히 일한다.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밤에도 열심히 축하하는 것이다. 때문에, **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**를 더욱 아름답게 빛내는 상징적인 고층건물들이 가장 생생한 컬러들의 옷을 입고 **색색의 컬러들로 밤하늘을 장식**하는 결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.

이 어두운 밤하늘을 빛내는 스카이라인에서 받은 영감으로, 이러한 기쁨 또는 흥분이 공기에 스며드는 오 드 퍼퓸 **뉴욕 나이트**가 탄생했다. **넓은 스펙트럼의 도시 여성 그루망**처럼, 뉴욕 나이트는 뉴욕의 해가진 후 어두운 밤 스카이라인의 물결치는 빛을 완벽하게 포착한다. 탑노트는 **당당하게 로맨틱한** 자스민과 치자나무의 **플로럴향**이다. 이후 **깨끗한 플로럴 바다향**으로 생기를 불어넣은 패츨리와 샌달우드의 따뜻하고 매혹적인 하트 노트가 이어진다. 그리고 심장을 뛰게 하고 뉴욕의 밤을 강조하는 카라멜이 녹아든 커피 향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베이스노트로서 이 아름다운 향을 분위기 있게 **마무리한다**. 아름답게 조화된 해당 향은 몇분이

자니면 **예상치 못했던 흥미로운 크리미한 플로럴의 흔적을 마치 공기처럼 가볍게 남긴다**.

뉴욕 나이트의 병 양면은 어둠이 내려앉은 후 도시의 밤에 어울리는 양식화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. 해당 향수의 병은 환하게 빛나는 늦은 밤의 로얄 블루컬러를 배경으로 한다.

2017년 9월 15일 뉴욕 나이트(New York Nights)가 첫 출시된다.

가격: 100ml: 375달러 (USD), 50ml: 260 달러(USD)

www.bondno9.com

문의: 646.284.9013 또는 publicrelations@bondno9.com